

■ 11대 핵심과제 - 25대 주요과제, 어떻게 진행되나

스리랑카 평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빈부격차, 지역감정 등 국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생에 대한 자비를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종교간의 연대와 화합은 국민통합을 앞당기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33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는 종교 간 교류활동의 증진을 통해 범종교적인 자비를 실천하자는 원력을 세웠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춰 상반기 종교교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웃종교와의 연대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다.

지난 3월19일 발족한 조계종 종교교류위원회(위원장 혜경스님, 총무원 사회부장)는 이웃종교 교류협력, 해외 성직자 초청 종교 간 대화 등 종교교류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여러 종교단체와 더불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종단 내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 총무원 사회부의 입장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최근 국·팀장 워크숍을 열어 11대 핵심과제와 25대 주요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전체 종무원 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종단 운영방침을 설명하고 종무원들의 정진과 분발을 주문했다. 이에 본지는 핵심주요과제의 상반기 성과에 근거한 하반기 계획을 미리 살펴 종도들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마련했다.

◆ 핵심과제 ⑥ 종교 간 협력을 통한 공동선 실현

국고 지원 ‘전쟁고아 평화교육’ 실시 종단내 지역 네트워크…인력풀 구성 ‘이웃종교와 연대 사업’ 활발히 진행

다. 종교교류위원회는 출범 이후 이웃종교 교류방향과 개신교와의 교류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2차례의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대종교 성직자 추구대회, 이웃종교 성직자 초청 불교문화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이슬람과의 대화 등 이웃종교와의 개별적 유대와 이찬수 강남대 해직교수에 대한 복직지원 등 종교갈등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힘썼다.

무엇보다 스리랑카에 지을 예정인 평화복지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힌두교와 불교간 종교분쟁을

종식하고 한국 종교계의 도움으로 평화와 재건의 기반을 닦는다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평화복지센터는 전쟁고아들에게 평화교육 등을 실시하며 자립을 돕는 학교다.

조계종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 부설 종교평화국제사업단의 국고 지원사업으로 힌두교를 믿는 타밀 반군의 점령지였던 스리랑카 와우니아 시(市)에 들어선다.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을 운영하는 한스 문화사회복지재단이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1차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11월 개원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종교간 공동선 실현을 위한 내적 조직과 내용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웃종교 협력사업과 함께 종교평화위원회 화쟁위원회 등 종단 내 관련기구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소통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월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환담을 나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서 불교계의 아쉬운 부분은 향후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조계종 예방

총무원장 자승스님 ‘공원 사찰규제 아쉬움’ 표명

“불교계 필요로 하는 것 챙기도록 하겠다” 화답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만의 장관의 유임을 축하하며 “국립공원 내 사찰 규제완화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70~80%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만의 장관은 “전체 국민들

을 생각하는 가운데 불교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달라”는 임장을 전달했으며, 사회부장 혜경스님도 “종교계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나 교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장관은 “사업에 앞서 종교 지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기획실장 원담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이 배석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확산

주요과제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 호평 국내외 자비행… ‘위상 제고’

국내외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빛을 발했다. 단적인 예가 지난 1월 지진참사가 발생한 아이티에 대한 긴급구호 의료봉사단 파견과 구호자금 모연이다. 종단은 1월28일 지진으로 20만 명의 희생자를 낸 아이티로 의료봉사단을 급파했으며, 봉사단은 현지에서 활발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 함께 해외 NGO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불교신문과 종단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공동으로 전개한 모금 캠페인에는 10여 만에 달하는 불자들의 성금이 답지했다. 아울러 아이티 구호활동의 원만회향을 계기로 조계종과 동국대병원이 상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은 점도 성과다. 아이티 구호 외에도 유네스코 아이티 교육복구지원, 중국 칭하이성 지진피해복구기금 전달 등으로 조계종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소외이웃과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해, 불교계 내외에서 박수를 받았다. 계층과 지역, 종교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러한 자비나눔은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아이티 구호사업기금의 집행도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색국면 인도적 지원 노력 남북소통 창구 소중한 결실

조계종은 북핵 사태라는 최악의 국면에서도 신계사 복원을 원만하게 회향하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올해 역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태 등으로 극단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 불교계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지난 1월말 평양을 방문해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교류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어 남북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민추본)와 북측 조불련은 3월30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 동시법회 봉행과 공동발원문 채택 등을 합

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정부 간 대화창구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도 민간교류의 한계성을 딛고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맺는 평가다.

특히 종단은 최근 대규모 수해로 인해 살인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측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동포애의 마음으로 긴급구호물품 전달과 성금모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5000여만 원 상당의 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이 9월 중 개성이나 남포를 통해 지원되며, 민주본과 아름다운동행은 9월 한 달간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장영섭 기자 fue1@ibulgyo.com

현장에서

훈련소 법당신축 ‘모연 사칭’ 적극 저지해야

종단 숙원사업이 난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가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사칭한 불법 모연이 연이어 발각되면서 후원금 모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군승을 사칭하고 다니는 문제의 주인공은 지난 6월 동해 삼화사 인근에서 승합차에 ‘군종교구와 불교신문 등 불교계 언론사가 후원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육군훈련소 신축불사를 위한 모연활동을 벌이다 발각됐다.

당시 군종교구는 당사자에게 엄중경고하고 재발방지를 다짐받았다. 본지도 지난 6월23차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2633호) 신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사부대중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그는 이미 순천지청에서 사기죄로 수배 중인 요주인물이었다. 지난 7월에도 불법모연으로 인한 피해사태가 접수됐고, 급기야 군종교구는 인적사항을 종단과 교계언론에 공개해 피해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다.

현재 육군훈련소 신축불사와 관련된 모든 모연은 군종교구와 전국 군법당에서 접수받고 있다. 특히 군종교구 차원에서 길거리 모연을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다. 순수한 의도와 할지라도 군종교구의 허가를 얻지 않은 모연은 모두 불법이고, 그 자체로 사기다.

이같은 행위는 불사에 보시했던 불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했던 순수한 자비심까지 짓밟는 중죄로 해당불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종교구는 물론 종단차원에서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불교! 세계불교의 중심 · 실천하는 수행공동체!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산불교연합신도회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불, 법, 승 삼보를 호지하고 부산불교가 세계불교의 중심이라는 Vision으로 부산불교연합회와 함께 2010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설동근 합장

제1회 아시아 불교국가(몽골) 지원 및 교류 『현웃(의료)지원』을 통한 양국 우호증진

아시아 빈곤국가인 몽골에 현웃(의료)를 모아서 지원하는 해외 불교 포교행사로 부산불교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는 뜻 깊은 행사

- 모집기간: 2010년 8월 13일 ~ 9월 10일까지
- 모집처: 부산불교연합신도회(051-861-8800)
수영구노인복지관(051-759-6070)
- 모집내용: 현웃(의료)는 세탁한 후 모집처로 택배 또는 내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달식: 9월 13일(월)
- 몽골방문: 10월 중 개최
- 기업체 물품 후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제2차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세미나

『부처님 가르침속의 자비와 복지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불교 포교증대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연구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불교사회복지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는 세미나

- 일시: 2010년 9월 7일(화) 16:00~18:00
- 장소: 안국불교대학 중강의실
- 특강: 박경일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불교사회복지의 방향과 과제
- 발표1: 혜종 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불교경전을 통해서 본 효 사상과 노인복지 실천방향
- 발표2: 정여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
부모은중경과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좌장: 류기형 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각 우 스님(무량수노인요양원장)
이춘성 회장(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장)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걷기대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불교 수행 방법 중 하나인 명상을 걷기와 접목한 걷기대회로 종교를 초월하여 부산지역 불교신도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과 어울림의 한마당

- 일시: 2010년 10월 30일 09:00~12:00
- 장소: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내)
- 걷기코스: 3.3km
- 참가대상: 부산시민 누구나
- 참가인원: 3,000명
- 주요행사
 - 1부: 개회식(명상하며 걷는 방법)
 - 2부: 걷기대회
 - 3부: 화합과 회향의 한마당 대잔치
(공연 및 경품 추첨)